

# 동결식 'V1V2了'와 'V1V2(了)'에서의 '了'와 'V2'

— 상을 중심으로

왕수향\*

---

## ◁ 목 차 ▷

---

- I. 서론
  - II. 완료상과 '了', 'V2'
    - 1. 완료상과 '了'
    - 2. 상황상과 'V2'
  - III. '了'와 'V2'의 경계화 기능
    - 1. '了'의 경계화 기능에 대하여
    - 2. '完'의 경계화 기능에 대하여
  - IV. 결론
- 

## I. 서론

우리의 논의는 아래의 문장에서 출발한다.

- (1) a. 我每天看完新聞聯播后就看天气預報，特別關注你們那里的天气。《月光斬》
- b. 他的下屬們，听完(了)介紹，用熱烈的掌聲表示了對市長設計的贊賞。《月光斬》
- c. 他只是一口气吞下了五鉢飯，吞完了還不知道剛才吃了些什麼。《馬橋詞典》

위 예문(1)은 모두 결과보어 '完'으로 이루어진 동결식 V1V2이다. 예문(1a) '看

---

\* 성균관대학교 중문과 강사

完' 뒤에는 '了'가 출현하지 않았고, 예문(1b) '听完' 뒤에는 '了'가 출현하였지만 생략이 가능하며, 예문(1c)의 경우 '吞完' 뒤의 '了'를 생략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劉勳宁(2002)은 많은 학자들이 '了'의 기능을 완료라고 보면서, '了'에 대하여 「我吃了」는 '吃'의 동작이 완료된 것이며, 「書看了」는 '看完了'의 의미이다.」라고 설명한다고 지적하였다.<sup>1)</sup> 본문은 劉勳宁의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갖게 되었다. 위의 설명대로 '了'가 완료를 나타낸다고 볼 때, 「我吃了」, 「書看了」, 「看完了」는 모두 완료된 동작이다. 하지만 '完'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이에 본문은 다음과 같은 의문점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첫째, '了'와 결과보어는 모두 '완료'를 나타내는가?

둘째, '了'와 결과보어가 같은 '완료'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셋째, 동결식 V1V2了에서 '了'는 어떤 경우에 출현하지 않는가?

본고는 위의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동결식 'V1V2了'와 'V1V2(了)'를 근거로 '了'와 결과보어의 관계를 살피고 그 차이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선행 작업으로 중국학계의 '了'와 결과보어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상의 개념과 상의 한 범주인 상황상(situation aspect)과 결과보어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 II. 완료상과 '了', 'V2'

### 1. 완료상과 '了'

현대중국어에서의 '了'는 절대적인 시제를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많은 학자들은 상(aspect)의 개념으로 '了'를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어 상의 경우 교차적인 개념이므로 이들 학자들의 '了'에 대한 정의는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1) 劉勳宁 〈現代漢語句尾「了」的語法意義及其解說〉 2002

黎錦熙(1924/1992)는 '了'를 '완료'를 나타내는 '조동사'라 보고 동사의 시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고, 王力(1944/1984)는 '了'를 시간과 관련이 없는 완료(完成貌)로 보았다. 呂叔湘(1990)은 '了'가 동작의 완료상(既事相)을 나타내기도 하며, 결정(決定)과 같은 어기를 나타낸다고도 하였다. 朱德熙(1997)는 「看了一遍」은 이미 보았다 라는 뜻으로 '看一遍'과 다르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了'의 기능은 동작의 완료이다」<sup>2)</sup>라고 하였다. 朱德熙(1997)의 예문을 보자.

- (2) a. 他下了課就上圖書館去了。  
 b. 下了課再去。  
 c. 關了燈就什麼也看不見了。

예문(2)에서 (2a)'下了課'는 과거의 일이고, (2b)'下了課'는 발생하지 않은 일이며, (2c)'關了燈'은 조건이나 가정의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위와 같이 중국어에서의 '了'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황은 과거나 미래 혹은 어떤 조건이나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시제가 아닌 완료로 보고 있다. 또한 '了'의 이러한 과거 이외의 미래나 조건, 가정에서 쓰이는 경우가 '了'를 시제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점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了'를 시제의 각도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陳平(1988)、李臨定(1990)、龔千炎(1991) 등은 중국어 연구에 있어 시제(tense)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고, 劉勛寧(2002)은 더 나아가 중국어에도 시제를 나타내는 자체만의 범주가 있다고 보았다. 劉勳寧은 '了'가 표면적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에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문장에 나타난 참조시간<sup>3)</sup>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발화시점이 현재가 아닌 기타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의 기준이 되는 참조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 a. 1936年10月19日的下半夜, 他休息了。  
 b. 明年, 我該大學畢業了。

2) 朱德熙《語法講義》1997.

3) 參照時間: 참조시간.

예문(3)에서 ‘了’는 과거(예문3a)와 미래(예문3b)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다. 예문(3a)에는 ‘1936年10月19日’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고, 예문(3b)에는 ‘明年’이라는 시간이 각각 주어졌다. 이 참조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休息’와 ‘畢業’는 이미 발생한 동작이나 행위로서, 이는 사실상 ‘了’가 시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사실 시제는 절대적 시제와 상대적 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절대적 시제란 발화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상대적 시제란 주어진 참조시간을 기준하므로 ‘了’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쓰일 수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본문에서는 ‘了’를 상대적 시제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본문에서 ‘了’를 완료로 보지 않고 상대적 시제로 보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만약 ‘了’가 완료를 나타낸다면 ‘了’와 결합되는 동사는 그 동사가 갖는 의미적 성질을 떠나 모두 완료를 나타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了’와 결합된 동사들은 완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예문을 보자.

- (4) a. 我看了他一眼。  
 b. 這件事他想了很多年了。  
 c. 商場前面坐了不少人。

예문(4)에서 (4a)‘看了’는 완료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만 예문(4b), (4c)<sup>4)</sup>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劉月華(2001)는 교육학적 면에서 고려하여, ‘了’에 대한 설명이 ‘완료’ 보다는 동작의 ‘발생’이나 ‘실현<sup>5)</sup>’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합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了’를 상대적 시제로 보고, ‘실현’의 의미로 보고자 한다.

4) 劉勛宁(2002)에 의하면 「시간을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누어 볼 때, 현재는 단지 한 시점(切点)이다. 따라서 한 사건을 서술하는데 있어서 그 사건은 발화 전에 발생했거나 혹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관한 것이다. 발화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V了’는 발화시간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과거에 속한다」고 하였다. 劉(2002)의 이러한 의견에 따르면 예문 4(b), 4(c) 또한 이에 속한다고 보겠다. ‘想’을 기준으로 볼 때 ‘想了’는 ‘想’이라는 행위가 벌어졌음을 나타내고, ‘坐’를 기준으로 볼 때 ‘坐了’는 ‘坐’라는 동작이 벌어졌음을 나타낸다. 단지 ‘想’, ‘坐’등과 같은 동사는 동사 자체가 갖는 의미적 특징으로, 문장에서 ‘想’, ‘坐’와 같은 동작이나 행위가 발생된 상태에서 이러한 동작이나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5) 劉月華《實用現代漢語語法》379-381쪽.

## 2. 상황상과 'V2'

중국어에서 상(aspect)에 대한 개념이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了'가 완료를 나타낸다는 주장과 동시에, 허화된 의미를 갖는 결과보어 또한 완료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陳忠(2004)은 '完、好、熟、透'와 같은 몇 개의 결과보어가 '了'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龔千炎(1991)은 '完、掉、成、好、着、住、到' 등과 같은 결과보어가 '了'와 같은 상 범주를 나타내는 어법의 수단으로 보았다. 屈丞熹(1993)는 결과보어가 완료를 나타내는 하위범주(次范疇)에 속한다고 보았고, 이창호(1998)는 결과보어가 '달성'이라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이 결과보어 V2가 완료를 나타낸다는 견해는 '了'를 완료의 표지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혼동이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결과보어가 완료를 나타내는 하위범주(次范疇)에 속한다면, 그 범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본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Lyons에 따르면 상(aspect)이란 슬라브어 어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동사에 관한 문법 범주를 말한다. 이는 시간 영역 내의 동작과정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른 동작의 양태나 성질 등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있다. 하나의 행위동작은 시간의 축으로 볼 때 어느 한 시점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행위동작의 내부 과정을 살펴보면 '시작-지속-종결' 단계로 볼 수 있다. 상이란 원래 완료(perfective)와 미완료(imperfective)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지만, 여기서의 완료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와 교차점에 있기도 하다. 이러한 까닭에 중국어에서는 동사의 상과 관련하여 항상 '了'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Smith(1994)는 상을 관점상(viewpoint)과 상황상(situation aspect)으로 나누었다. 관점상은 주로 동사의 굴절 형태소 등에 의해 표시되므로 문법적인 상이라 할 수 있고, 상황상이란 동사와 논항 그리고 부사류 등에 의해 표현되는 상황 내부의 시간 구조를 의미한다. 결과보어 V2는 앞의 동사 혹은 논항과의 문제가 가장 밀접한 관계로 상황상이라 볼 수 있겠다. Vendler(1967)<sup>6)</sup>은 동사의 상적 특징에 주목하여 完結(accomplishment), 活動(activities), 達成(achievement), 狀態(state) 4가지를 유형으로 꼽았다. 이 4가지 유형에 대한 그의 설명을 살펴보자.

6) 陳嘉映 역 《哲學中的語言學》 2003. 재인용.

完結이란 시간상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종착점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예: 跑一英里(running a mile), 畫一個圓圈(drawing a circle)。

活動이란 시간상에서 발생하지만 종착점이 없다.

예: 推手推車(pushing a cart), 跑步(running)。

達成이란 순간적인 시각에 발생하는 것이다.

예: 到達山頂(reaching the top), 死亡(dying)。

狀態란 지속이며 시간상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닌 단지 존재할 뿐이며, 시간상에서의 변화가 없다.

예: 知道什麼事情(knowing something), 愛某人(loving someone)。

Vendler은 이 4가지 유형을 동사가 갖는 상적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동사와 다른 성분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4가지 유형이라고 하겠다. 특히 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와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다. 이와 같이 이 4가지 유형이 동사 자체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와 관련된 기타 성분 전체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으므로 중국학자들은 이를 상황유형으로 받아들이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논의하였다(鄧守信 1986, 陳平 1988, Smith 1990/1994). 鄧守信(1986)은 Vendler의 4가지 분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상황유형이 동사의 분류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에 있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문장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황유형을 동사에만 국한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陳平(1988)은 狀態(state), 活動(activity), 完結(accomplishment), 複變(complex change), 單變(simple change) 5가지 상황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複變과 單變은 동결식 V1V2와 관련되어 있다. ‘長大、拉長、變好’ 같은 ‘動形’ 결합과 ‘跑來、滑下、飛過’ 같은 ‘動趨’ 결합을 複變으로 보고, ‘打破、推倒、吃完、學會’ 같은 ‘動動’ 결합을 單變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의 의미적 자질을 보면, 複變류는 ‘동적, 완료, 비지속’의 특징을 가지며 單變류는 ‘동적, 미완료, 비지속’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둘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전자는 ‘완료’의 특징을 가지며, 후자는 ‘미완료’의 특징을 갖는다고 하겠다. 하지만 본문은 陳平(1988)이 위에서 나눈 複變, 單變 유형에서의 V2가 모두 V1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볼 때, 이를 ‘완료’, ‘미완료’의 특징으로 나눈다는 견해에 찬성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결과’란 이미 동작이나 행위가 종착점에 도달한 것으로 ‘미완료’의 자질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Vendler(1967)이 분류한 상황상인 '완료'와 '달성'을 보면 모두 [+종착점]을 갖는다. 그러면 '완료'와 '달성'의 차이는 [+순간적] 자질에 있는데, 이는 즉 [-순간적]이면 완료, [+순간적]이면 달성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V1V2인 '打破, 洗干淨, 吃飽'<sup>7)</sup>에서 V2가 나타내는 결과를 Vendler(1967)의 유형에 비추어 볼 때, 완료 유형인 '跑一英里, 畫一個圓圈' 보다는 달성 유형인 '到達山頂, 死亡'과 매우 흡사하다. 이에 본문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참고로 하여 V2가 나타내는 결과란 어휘의미적(상황적) 결과이고, 또한 이러한 결과는 V1이 나타내는 동작이나 행위가 진행되다가 [+순간적] 자질로 종착점에 도달한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V2가 나타내는 결과는 Vendler(1967)의 4가지 유형인 '달성'에 속한다고 보겠다. 또한 V2의 결과가 [+순간적] 자질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실현'을 나타내는 '了'와의 관계에서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하다고 여겨진다.

### Ⅲ. '了'와 'V2'의 경계화 기능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인지언어학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경계화<sup>8)</sup>의 개념으로 '了'의 숨김과 드러냄<sup>9)</sup>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李興亞 1989, 陳忠 2004, 吳福祥 2005, 沈家煊 1995). 李興亞(1989)는 '了'의 숨김과 드러냄을 결정하는 데에는 5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았는데, 1) 동사 앞에 '已經'과 같은 과거를 나타내는 성분이 있는 경우, 2) 동사 뒤에 수량사구가 있는 경우, 3) 연속되는 동작이 후속절에 이어지는 경우, 4) 동사 뒤에 결과보어가 있는 경우, 5) 문미에 '了'가 있을 경우이다. 그는 이 5가지 요인들 중 1) 2) 4) 5) 모두 경계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7) 일반적으로 동결식 V1V2에서 V2는 陳平(1988)의 방법과 같이 동사 외에 형용사도 포함한다.

8) '有界', '无界'란 인지언어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有界'란 시간상에서 볼 때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시작점과 종착점을 갖는 것을 말하며, '无界'란 시간상에서 볼 때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시작점과 종착점을 가지지 않거나 혹은 시작점만 있고 종착점이 없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我們跑到學校'는 경계에 속한 동작이지만, '我很想家'는 경계에 속하지 않은 동작인 것이다.

9) '隱現'을 '숨김과 드러냄'으로 번역했다.

‘了’의 숨김과 드러냄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그가 든 예문을 보자.

- (5) a. 大炮已經響了三天。  
b. 大炮已經響三天。
- (6) a. 小王從桌子上拿了一本書, 便看了起來。  
b. 小王從桌子上拿一本書, 便看了起來。
- (7) a. 她吃完了飯, 換上了新衣服, 出門了。  
b. 她吃完飯, 換上新衣服, 出門了。
- (8) a. 我昨天回到了開封。  
b. 我昨天回到開封。
- (9) a. 我看了三遍了, 怎么還記不住?  
b. 我看了三遍, 怎么還記不住?

沈家煊(1995) 또한 1) 2) 4) 5)의 4가지 요인들이 ‘了’와 같은 완료의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了’가 생략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어서 그는 요인 3)에 대하여 「후속절은 앞 절에 대한 상황을 제한시키는 작용이 있고, 특히 후속절의 동작이 완료로 나타날 경우, 앞 절은 종종 경계화 된 상황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보면, 셋째 요인 또한 경계화의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 1. ‘了’의 경계화 기능에 대하여

경계화란 즉 동작이나 행위가 종착점을 갖는다는 의미이지만, 종착점을 갖는다는 면에서 보면, 상황의 ‘완료’ 유형과 ‘달성’ 유형의 구별은 오히려 불분명 해진다. 본문에서는 ‘了’를 상대적 시제로 보고, 또한 ‘실현’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리고 V1V2에서 ‘V2’가 나타내는 결과란 어휘의미적 결과이며, 또한 이러한 결과는 [+순간적] 자질로 종착점에 도달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V2’가 나타내는 ‘결과’와 ‘了’의 ‘실현’ 의미는 더욱 분명해 지는데,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위의 예문을 다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V1V2와 관련된 예문을 보자.

- (10) a. 她吃完了飯, 換上了新衣服, 出門了。  
b. 她吃完飯, 換上新衣服, 出門了。



예문(10)은 'V1V2了'인 '吃完了', '換上了'가 출현한 병렬문이다. 병렬문일 경우 동작의 실현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절을 제외한 기타 절에서는 '了'가 출현하여 동작의 실현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앞 절에서는 단지 동작이 종착점에 이르렀다는 정보만 필요한데, 이는 앞의 동작이 종착점에 이르고 나서야 뒤의 동작이 이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렬문일 경우 일반적으로 마지막 절에만 '了'가 출현하여 최종적으로 동작의 '실현'을 나타낸다. 李興亞(1989) 등은 예문(10b)에서 '了'가 숨겨졌다고 보았지만, 사실 (10a), (10b)의 차이는 '出門了'의 앞 절에서 '了'가 출현하여 동작의 실현을 나타내거나(10a), 혹은 '了'가 출현하지 않으므로 동작의 실현을 나타내지 않는(10b) 데에 있다고 본다. 위의 경우 병렬문이므로 (10b)가 더욱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다음 예문을 비교해 보자.

- (11) a. 他強調，中國實行改革開放以來，人民吃好了，穿好了，住好了，這就證明這條路走對了<sup>10)</sup>。  
 ? b. 他強調，中國實行改革開放以來，人民吃好，穿好，住好，這就證明這條路走對了。

일반적으로 병렬문일 경우 앞 절에서는 '了'가 출현하지 않지만, 위 예문(11a)에서는 '了'의 '실현' 의미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V1V2 앞에 '了'가 나타난 경우이다. 만약 李興亞(1989) 등의 견해와 같이 '了'가 생략되었다고 본다면, 이 문장은 (11b)와 같이 비문이거나 어색한 문장이 된다. 예문(11b)가 어색한 이유는, V2인 '好'가 동작 '吃, 穿, 住'의 '달성'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후속절에서의 '這就證明這條路走對了'라는 표현과 의미상 어울리지 않는다. '這就證明這條路走對了' 라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앞 절에서 V2의 [+순간적] 종착점을 나타내는 '달성' 외에 '了'의 '실현' 의미가 꼭 필요한 것이다. 이어서 V2가 '到'로 이루어진 예문을 보자.

- (12) a. 我昨天回到了開封。  
 b. 我昨天回到開封。

예문(12)는 후속절이 없으므로 (12a)의 경우가 더욱 자연스럽다. 일반적으로 문

10) 말뭉치(corpus) 자료의 예문.

장이 끝날 때는 ‘了’가 출현하여 동작의 실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상황 전체의 실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12b)의 경우, V1V2 뒤에 ‘了’ 없이 단지 V2 ‘到’만 출현하여 [+순간적] 종착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문장이 끝나지 않고 후속절이 이어지는 느낌이 든다. 다음 예문과 비교해 보자.

- (13) 他又聽到一個人響亮地說：快掐住他的脖子！《月光斬》  
 (14) 果然就有兩隻冰冷的大手，掐住了他的脖子。《月光斬》  
 (15) 林餃子讓她喝完，她就喝完，喝完了女人就兩腮鮮紅，人就煥發得明媚<sup>11)</sup>。

위 예문을 보면 예문(13)은 명령문으로 V2 ‘住’가 나타내는 [+순간적] 종착점인 ‘달성’이 강조된 경우이고, 예문(14)는 후속절에서 V1V2 뒤에 ‘了’가 나타나 앞 절에서의 ‘果然’이 서술하는 상황과 의미적으로 부합하다고 하겠다. 만약 예문(13)에서 ‘掐住’가 아닌 ‘掐住了’가, 혹은 예문(14)에서 ‘掐住了’가 아닌 ‘掐住’로 쓰였다면 이 두 예문은 비문이거나 어색한 문장이 될 것이다. 예문(15)는 병렬문으로 V1V2가 나타난 마지막 후속절에서 ‘喝完了’가 了의 ‘실현’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 절에서는 ‘喝完’만 나타나 ‘完’의 [+순간적] 종착점을 기준으로 ‘喝完’의 동작이 다시 한 번 이어지고 있다. 즉 여기서 ‘喝完’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了의 ‘실현’이 아닌 [+순간적] 종착점인 것이다. 이어서 李興亞(1989)의 나머지 예문을 보자.

- (16) a. 大炮已經響了三天。  
       b. 大炮已經響三天。  
 (17) a. 小王從桌子上拿了一本書，便看了起來。  
       b. 小王從桌子上拿一本書，便看了起來。  
 (18) a. 我看了三遍了，怎麼還記不住？  
       b. 我看了三遍，怎麼還記不住？

예문 (16),(17)에 대해서 李興亞(1989)등은 각각 ‘三天’, ‘一本書’가 출현하여 ‘了’와 같은 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了’가 생략되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예문(18) 문미의 ‘了’가 왜 생략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본문은 예문(16), (17),

11) 말뚝치(corpus) 자료의 예문.

(18)<sup>12</sup>의 경우 또한 '了'가 출현하여 '실현'을 나타내거나 혹은 나타내지 않는 점에 있다고 본다. 예문(16)은 후속절이 없는 문장이므로 V2 '響' 뒤에 '了'가 출현하지 않은 (16b)'大炮已經響三天'은 어색하게 느껴진다. 예문(17)은 후속절이 이어지는 문장으로, 앞 절에서 V1V2의 실현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了'가 출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또한 (17)에서의 후속절이 '便'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면, 이는 앞 절에 이어 동작이 바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므로 (17b)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할 수 있겠다. 吳福祥(2005)은 '了'의 숨김과 드러냄은 '了'의 '경계화'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완료란 하나의 상황이 시간상에서 경계를 갖는 것이며, 바로 '了'가 상황을 '경계화' 시킨다고 하였다. 陳忠(2004) 또한 '了'가 가지는 어법적 기능은 경계화에 있고, 어떤 범위의 어휘들 또한 이러한 특징을 가지며, 이 어휘들은 동사 뒤에 출현하여 결과보어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 성분들이 문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了'와 중복될 경우, 이 둘의 어법적인 기능이 유사한 이유로 '了'가 이러한 성분들로 대체된다고 생각하여 '了'의 숨김 혹은 드러냄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9) a. 那本書看完(了)好几天了。  
 b. 那本書看完了好几天了。  
 (20) a. 他甩掉(了)棉衣赤膊干起來。  
 b. 他甩掉了棉衣赤膊干起來。  
 (21) a. 我早就洗干净(了)那件衣服了。  
 b. 我早就洗干净了那件衣服了。

위는 陳忠(2004)이 든 예문인데, 그는 V1V2 뒤에 있는 '(了)'가 'V2'에 대체되어 숨겨졌다고 보았다. 본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견해들<sup>13</sup>이 'V2'가 나타내는 결과와 '了'에 대한 기능을 혼동하는 것이라 본다. 위 예문에서의 문제점은 만약 '了'가 숨겨진 상태라면 'V2'와 '了' 모두 출현할 경우 이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데, 이

12) 본문에서는 了를 了1, 了2로 나누어 설명하지 않고 있다. 예문(18)과 같은 경우는 따로 논의가 필요하다.

13) 인지언어학 측면에서 경계화 이론이 갖는 의미와 성과는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지 동결식 'V1V2'에서 '了'의 숨김과 드러냄에 관한 것이다.

는 예문(19b), (20b), (21b) 또한 성립되기 때문이다. ‘完、好、掉、住’ 등과 같은 ‘V2’는 비교적 허화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V2’가 나타내는 결과는 어휘적 의미가 분명치 않고, 의미지향<sup>14)</sup>이 앞의 동사 V1에 있으며 따라서 동작 자체의 결과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허화된 의미를 갖는 V2가 ‘了’와 같은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예문19, 20에서의 ‘完、掉’). 陳忠(2004)은 허화된 의미를 갖는 ‘V2’ 외에 ‘洗干淨’과 같은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다(예문21). 이어서 다음 예문을 보자.

- (22) a. 孩子哭醒了。  
b. 她洗干淨了衣服。  
(23) a. 我擦完了桌子。  
b. 我忘掉了那个人。

‘V2’가 허화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근거는 ‘V2’만 따로 분리하여 문항과의 결합을 이룰 수 있는 가에 달려있다. ‘V2’가 실질적 의미를 갖는 경우, 동결식 VIV2는 독립된 두 개의 서술문을 형성하여, 두 가지 사건을 서술한다. 예를 들면, (22a)는 ‘孩子哭 + 孩子醒’, (22b)는 ‘她洗衣服 + 衣服干淨’과 같은 두 개의 사건을 나타낸다. 하지만 ‘V2’가 허화된 의미를 갖는 경우, VIV2는 단지 하나의 서술문을 만들 뿐이다. 예를 들면, (23a)는 ‘我擦了桌子 + ?桌子完’, (23b)는 ‘我忘了那个人 + ?那个人掉’와 같은 단지 한 가지 사건을 나타낸다.

## 2. ‘完’의 경계화 기능에 대하여

동결식 VIV2 중 가장 허화된 의미를 갖는 V2는 ‘完’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了’의 ‘완료’와 ‘V2’의 ‘결과’를 같은 ‘경계화’란 개념으로 동일시 하고자 할 때 항상 예문에 쓰여지는 대표적인 V2이다. 李思旭(2011)는 ‘完’이 경계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여 의미지향에 따라 ‘完1’, ‘完2’, ‘完3’으로 나

14) 여기서의 의미지향이란 V2가 의미적으로 가리키는 성분을 나타낸다. V2가 가지는 어휘적 의미가 구체적일수록 명사적 성분(주어나 목적어)을 가리키고, V2의 어휘적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을수록 명사적 성분이 아닌 앞의 동사 V1를 가리킨다.

누어 '完'이 갖는 경계화의 기능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完1'의 의미지향은 동사에 있고, '完2'의 의미지향은 동사와 목적어에 있으며, '完3'의 의미지향은 주어에 있다고 하였는데, 다음은 그가 든 예문과 설명을 보며 본문의 견해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 (24) a. 你要真不想救二爺活命, 喝完酒去見二爺一面, 我再送他上西天。  
 b. 周炳剛吃完飯回來, 一轉身看見她倆, 就朝門口迎出來兩步。

李思旭(2011)는 위의 예문이 '完1'로 이루어졌으며 예문(24a), (24b)에서의 '完'은 동사 '喝', '吃'의 결과를 나타내므로 동사에 대한 경계화를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의 견해로 보면 '了'가 출현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24a)의 경우, '喝完' 뒤에 동사 '去'가 나타나는데, 이는 '完'이 나타내는 [+순간적] 종착점을 기준으로 하여 '去'가 끝이어서 발생됨을 보여준다. 또한 후속절에서 '再'가 출현하여 연이어 발생한 동작 '喝', '去'를 '送他上西天'으로 이어주고 있다. (24b)의 경우, V1V2 앞에 '剛'이 나타나 '吃'의 동작이 막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는 '完'이 나타내는 [+순간적] 종착점과 부합된다고 여겨진다. 또한 후속절에서 '—...就' 용법이 나오는데, 이 또한 '完'이 나타내는 [+순간적] 종착점에 이어서 곧 발생된 동작임을 알 수가 있다. 만약 '了'가 출현하여 '吃完了飯回來' 이었다면 후속절에서 '—...就' 용법이 나타내려고 하는 긴박성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다음은 '完2'의 예문이다.

- (25) a. 他走完了82歲的人生旅途。  
 b. 他堅持做完了所有要做的事, 然后回家。

그는 위의 예문은 '完2'로 이루어졌으며, 예문 (25a), (25b)에서의 '完'은 한편으로는 동사를 경계화 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목적어의 명사 성분을 경계화 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V2 '完'과 '了'가 함께 출현한 이유는 V2 '完'이 나타내는 경계화를 '了'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본문의 견해는 위와 같은 경우 'V1V2'의 '실현'이 반드시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了'가 출현했다고 본다. 예문(25a)의 경우 '그의 82세의 인생 여정'은 '走完'이 나타내는 [+순간적] 종착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走完'의 실현이 이루어졌을 경우이기 때문이며, 또한 만약 '了'

가 출현하지 않았다면 이는 ‘完’이 나타내는 [+순간적] 종착점을 기준으로 한 동작이 후속절에 나타나는 경우일 것이다. 예문(25b)에서는 우리의 견해가 더욱 확실하게 보인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후속절에 ‘然后’가 나타나 앞 절에 대한 ‘做完’에 대한 ‘실현’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完’의 예문이다.

- (26) a. 几百年的老房子了, 快要塌完了, 你們再來時恐怕就看不到了。  
b. 那个樓還沒有塌完, 他們繼續在冲, 這個時候我哭了。

‘完’으로 이루어진 위 예문은 주어에 대한 경계화를 이룬다고 李思旭(2011)는 설명하고 있다. 예문(26a), (26b)에서 ‘完’의 의미지향이 주어에 있기 때문에 주어 ‘房子’, ‘樓’와 관련된 명사 성분 전체를 경계화 시킨다고 보면서, ‘了’의 출현(26a)과 출현하지 않은(26b) 것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본문의 견해로 보면, 예문(26a)에서 ‘了’가 출현한 이유는 2가지이다. 첫째는 ‘塌完’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후속절과의 연결에서 의미상 성립이 되지 않는다. 후속절에 이어지는 ‘你們再來時恐怕就看不到了’의 의미는 ‘塌完’의 실현이 이루어진 ‘塌完了’의 경우에만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순간적] 종착점을 강조하는 ‘塌完’에 이어지는 상황이 ‘你們再來時恐怕就看不到了’로 나타날 수 없다고 본다. 둘째는 ‘塌完’ 앞에 ‘快要’가 나타나 ‘了’의 출현을 강요하고 있다. 예문(26b)은 V1V2 앞에 ‘沒有’가 출현하여 ‘了’의 필요성이 사라져 버렸다. 여기에서의 ‘沒有’는 ‘塌’의 동작이 ‘完’이 나타내는 [+순간적] 종착점에 이르지 않았음을 보여주므로, ‘了’가 나타내는 ‘실현’의 의미는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문(26b)을 통하여 V2의 ‘달성’과 ‘了’의 ‘실현’은 그 의미에 있어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IV. 결론

본문은 동결식 ‘V1V2了’, ‘V1V2(了)’를 근거로 상에 있어서의 ‘了’와 ‘V2’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했다.

첫째, ‘了’와 V2는 모두 ‘완료’를 나타내는가?

둘째, '了'와 V2가 같은 '완료'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셋째, V1V2에서 '了'는 어떤 경우에 출현하지 않아도 되는가?

본문은 기존 학자들의 연구를 참고로 '了'를 상대적 시제로 보고 '실현'을 나타낸다고 보았으며, 'V2'가 나타내는 결과는 [+순간적] 자질로 종착점에 도달하므로 상황유형인 '달성'으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로 볼 때, 위의 의문점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졌다고 생각한다. '了'와 'V2'를 혼동하는 이유는 이들의 기능이 모두 '완료'나 '경계화'에 있다고 보는데 있다. 특히 여러 학자들은 V2가 '경계화' 기능을 갖는다고 하여, V1V2 뒤의 '了'가 생략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동결식 'V1V2了'에서 보자면 '경계화'란 명칭은 오히려 '了'와 'V2'가 갖고 있는 자질적 특징을 희석화 하여, 이들의 구별을 더욱 혼동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경계화란 '완료', '종착점', '결과' 등을 갖는다는 의미로 경계화를 이루기 전까지의 과정이 무시되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동결식 'V1V2了'에서의 '了'와 'V2'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V2'가 갖는 [+순간적] 자질은 '了'와 'V2'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할 때 놓치면 안 될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의미상 허화된 정도가 가장 높다고 보여지는 V2 '完'의 의미지향이 동사 V1에 있는 반면에, '了'는 의미지향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차이점은 '了'와 'V2'의 관계를 구별하는데 있어서 분석 단계부터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다.

### 【參考文獻】

- 陳嘉映 譯 《哲學中的語言學》，華夏出版社，2003.
- 陳 平 〈論現代漢語時間系統的三元結構〉《中國語文》第6期，1988.
- 陳 忠 〈“了”的分布、隱現條件及其理據〉《漢語時體系國際研討會論文集》百家出版社，2004.
- 鄧守信 〈漢語動詞的時間結構〉《第一屆國際漢語教學討論會論文選》北京語言學院出版社，1986
- 龔千炎 〈談現代漢語的時制表示和時態表達系統〉《中國語文》第4期，1991.

- 《漢語的時相、時制、時態》，商務印書館，1995。
- 郭繼懋、王紅旗〈粘合補語和組合補語表達差異的認知分析〉《世界漢語教學》第2期，2001。
- 李思旭〈“有界”“無界”與補語“完”的有界化作用〉《漢語學習》第5期，2011。
- 李興亞〈試說動態助詞“了”的自由隱現〉《中國語文》第5期，1989。
- 劉勛宁〈現代漢語句尾“了”的來源〉《方言》第2期，1985。
- 〈現代漢語詞尾“了”的語法意義〉《中國語文》第5期，1988
- 〈現代漢語句尾“了”的語法意義及其解說〉《世界漢語教學》第3期，2002
- 劉月華〈動態助詞“過2、過1、了1”用法比較〉《語文研究》第1期，1988。
- 《實用現代漢語語法》，商務印書館，2001。
- 呂叔湘《漢語語法分析問題》，商務印書館，1979。
- 《現代漢語八百詞》，商務印書館，1980。
- 朱文俊 譯《歷史語法學理論與漢語歷史語法》，北京語言學院出版社，1993。
- 沈家煊〈“有界”與“無界”〉《中國語文》第5期，1995。
- 王 力《中國現代語法》，商務印書館，1985。
- 吳福祥〈漢語體標記“了、着”為什麼不能強制性使用〉《當代語言學》第3期，2005。
- 玄 玥〈“見”不是虛化結果補語〉《世界漢語教學》第1期，2010。
- 楊國文〈“動詞+結果補語”和“動詞重疊式”的非時態性質〉《當代語言學》第3期，2011。
- 朱德熙《語法講義》商務印書館出版社，1982/1997。
- 左思民〈現代漢語中“體”的研究〉《語文研究》第1期，1999。
- 이철수·박덕유 옮김 《동사상의 이해》，한신문화사，1998。
- 이창호〈상과 중국어의 결과보어—상황상을 중심으로〉《중어중문학》22집，1998。
- 최규발, 조경환 〈중국어의 PVC에 관한 소고〉《중국학논총》45집，2010。
- Lyons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1968
- 《Semantics》1&2，Cambridge University Press，1977
- Smith, Carlota S. 〈Aspectual viewpoint and situation type in Mandarin Chinese〉《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1994

### 【中文提要】

本文主要對動結式V1V2了, V1V2(了)考察“V2”和“了”之間的關係, 並力求



解釋這樣的一個問題：“了”爲什麼有時出現在“V2”後面，而有時不出現。本文把“了”看成相對時制并表示“實現”義，并把“V2”看成表情狀類型的“達成”。Vendler(1967)按照動詞的特点所分出的“達成”類跟“完成”類都有“終結點”，兩者之間的差別在於“達成”類具有〔+瞬間性〕到達終結點的特征。本文根據“V2”具有〔+瞬間性〕特征并分析相關句式V1V2了，V1V2(了)時發現，“了”確實有“實現”義。如果句子要強調V1V2的“實現”義時，則“了”一定要出現(如“他強調，中國實行改革開放以來，人民吃好了，穿好了，住好了，這就證明這條路走對了)。如果句子要強調V1V2中V2的〔+瞬間性〕時，則“了”一般不出現。(如“林餃子讓她喝完，她就喝完，喝完了女人就兩腮鮮紅，人就煥發得明媚。”)龔千炎(1991)等學者認爲V2“完、掉、成、好、着、住、到”表示與“了”類似的“完成體”，而且有些學者(李興亞 1989, 陳忠 2004, 李思旭 2011)根據“有界”理論力圖解釋V1V2後面“了”的隱現。但我們認爲“有界”也可以看成“完成”，“終結點”，“結果”等，我們通過本文的分析，可以看出這是一個忽略了情狀內部過程的觀點。因此，我們認爲“有界”理論不太適合討論V1V2後面“了”的隱現問題。還要注意的一點是，從語義指向來看即使是虛化程度高的V2“完”、“好”等，它們的語義仍在指着前面的動詞V1，而“了”不存在它的語義指向。從這一點可以看出，“V2”和“了”不在一個層次，在分析過程中不應該把它們放在一個層次去討論。

### 【主題語】

동결식 V1V2了, V1V2(了), 완료, 실현, 달성, [+순간적]자질, 경계화 기능

투고일: 2012. 4. 15 / 심사일: 2012. 4. 22~5. 5 / 게재확정일: 2012. 5. 10